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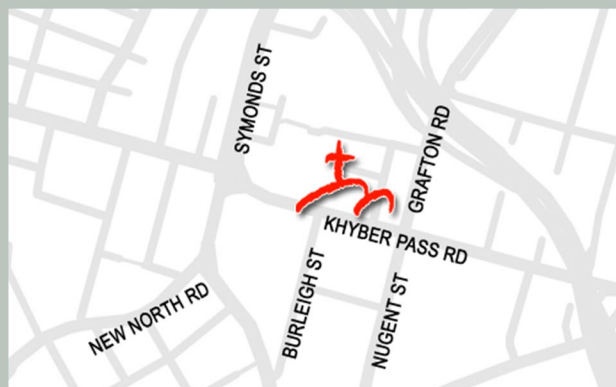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과 절제로 구주 성탄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 2020년 위한 정책 당회가 계속됩니다. 교회에 유익한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한 주간 기도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4. 2019년 성탄 감사 예배와 축하 잔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 오후 5-6시 저녁 식사 / 오후 6-7시 성탄 축하 / 오후 7시-8시
(성탄 감사 헌금은 전액 구제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5. 교회의 여러 분야를 함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와 제출함은 본당 입구에 있습니다.
분야/ 예배 준비 및 정리, 교사, 찬양단, 주차 안내, 음향, PPT, 주방 봉사 등
6. 성탄 축하 행사에 선교회와 공동체, 혹은 개인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신청 양식 참조).
7. 2020년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 당 벽걸이, 탁상용 각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8.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 수고하고 후원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9. 교회 음향 시스템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수고한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10. 내년도 헌금 영수증을 발행을 위한 성도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admin@calvary.org.nz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 각 선교회에서는 신입원 명단과 내년 사업 계획을 제출 바랍니다.
12. 임태원, 최은수 집사 가정 득녀(임채은) 축하드립니다.
13. 박현주 집사 아버지가 지난 17일(수) 소천하여 급히 출국했습니다.

[12월 교회 사역 일지]

25일(수): 성탄 감사예배 및 축하 잔치 31일(화) : 송구 영신예배
29일(주일): 송년주일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2/22
21권 51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마 2:6 & 요 4:24 -----	인도자
■ 찬송	----- 64장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12장 -----	다같이
대표기도	-----	박병민 장로
성경봉독	----- 누가복음 2:36-39 -----	인도자
찬양대찬양	----- 천사의 노래 ----- ----- 어서 가보자 아기 예수께 -----	나무십자가 찬양단
설교	----- 안나의성탄 -----	이태한 목사
찬송	----- 125장 -----	다같이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 445장 -----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수요예배	성탄 감사 예배 및 축하 잔치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성경봉독	마태복음 1:21-25	금주기도	오혜윤 자매
설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태한 목사	다음주일	오혜신 자매
찬송	126장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식사			
축하잔치			

[12/1월 기도 순서]
12월 29일 (주일) / 정관영 장로
1월 1일 (수) / 가정 예배
1월 5일 (주일) / 김병진 목
1월 8일 (수) / 가정 예배

[12월 예배 봉사자]
예배 안내 / 이광희, 김영옥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 민광호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MISSION

이번 주는 중앙아시아 K 국 강 나하르 선교사 소식입니다. (현재 안식년 중)

12월입니다. 연말이 되고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제가 있는 멜번은 하루에 4계절이 다 있어서 계절상 여름이지만 아직도 춥고 서늘한 느낌이 더 많습니다. 어찌면 집안에만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시드니에서 멜번으로 온 바로 다음 날 (11월 10일) 일이 발생했습니다. 밤에 예지네 가족(손 목사님 가정)과 저녁 식사 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갑자기 왼발에 날카로운 통증이 생기고 그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부축을 받고 겨우겨우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손 목사님이 카이로프랙틱 전문가이고, 부산에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형 선생님에게도 전화로 문의했는데 종아리 근육이 미세하게 찢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되도록 안 움직이고 목발을 사용하면서 집안에만 있습니다. 김스를 하거나 병원을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되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집안에서만/ 다리를 다친 직후에는 통증이 심해 무척 힘들었습니다. 주로 다리를 높이고 있거나 목발로 화장실과 거실을 다니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통증이 많이 없어졌고 걷는 것이 아직은 힘들지만 천천히 좋아지고 있어 감사합니다. 재밌는 드라마를(동백꽃) 깔깔거리며 보았고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움직임 없이 주로 정적인 상태이다 보니 생각이 많고, 관찰력이 더 발휘되고, 나니아를 읽으면서 작가의 문체와 다양한 인물들로 상상력이 생겨납니다. 다리를 다친 것, 이후 일정에 대한 염려, 당장의 필요, 변한 상황, 비행기 표 구매 등등 여러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다 지웠다를 반복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크고 깊은 일들은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터키시 딜라이트 맛에 혹 간 에드먼드가 나니아와 형제들을 위협에 빠트리게 되듯이 어찌면 내 지금의 상황에 집중하고 그 집중으로 인한 생각과 행동이 더 큰 그림과 더 깊은 뜻을, 우선순위를 모르고 (혹은 무시하고) 다른 것에 매달리게 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의 분주함과 씩씩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과 그분의 깊은 생각이 임하길 기도드립니다.

기도 제목

- 1) 다친 다리에 대한 염려보다 크고 깊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 2) 앞으로 결정해야 할 일정이 많은데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PRAYER

1. 진리의 영이 마음껏 역사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2.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3.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SHARING

연합

시편 133:1 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다양한 수련회와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 4월 오uckland 4개 교회가 뜻을 모아 첫 연합 수련회를 가졌고 6월, 9월, 11월 계속해서 연합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하나가 되어 수련회를 준비함으로써 풍성한 은혜 속에 친밀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연합 수련회와 연합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 됨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청소년부 안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여러 교회의 지체들이 연합하여 예배할 때 더욱 놀라운 은혜와 변화들을 보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년부만의 수련회나 예배 때에 찬양은 피아노, 기타로만 찬양하게 되지만, 연합하여 예배할 때에는 다양한 달란트를 가지고 준비된 찬양팀이 한 달 전부터 모여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연합 수련회와 예배 시간에 찬양의 은혜가 더 깊고 충만하게 흘러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박수 치지 않았던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았던 학생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 알지 못하던 학생들이 만나서 서로 알아가고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공감하면서 서로를 중보하고 축복합니다. 연합을 통해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연합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또한 이런 지속적인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지치고 힘들어하던 학생들이 연합 예배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를 2020년에도 우리 모두 놓치지 않고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이성철 목사 (청소년부 담당)

금주의 암송말씀

누가복음 2:38절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